

귀 쫄 아

-문학-



[객용 학습 04]

꽃(이육사)

누룩(이성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교육부문 1위 채널

- [고 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jk9221/jk006445>
- [고 1~2]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 [중 1~3] <https://contents.premium.naver.com/kl123/jk1234>

(가) 꽃

I 이육사

핵심 정리

작품 개관

억압에도 꽃이 피어나는 민족적 희망과 저항의 의지를 꽃을 통해 표현!

일제강점기라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민족적 저항과 희망을 상징하는 꽃을 통해 저항정신을 표현한다. 시 속 꽃은 단순한 자연물이 아니라 억압 속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자유와 정의의 상징으로 그려진다. 화자는 꽃을 바라보며 현실의 억압과 이상 사이의 긴장감을 드러내고, 민족의 부활과 해방을 염원한다. 강렬한 이미지와 상징적 언어를 통해 민족적 감정과 개인적 의지가 결합된 시적 정서를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꽃'은 자연과 상징을 통해 시대적 고난 속에서도 희망과 저항의 의지를 드러내는 시라 할 수 있다.

작품 개관

- 갈래: 자유시
- 성격: 저항적, 관조적, 영탄적, 상징적
- 주제: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과 기다림
- 어조: 강인하고 의지적인 남성적 어조
- 특징

1.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 화자의 모습이 담김.
2. 점층적 시상 전개로 주제를 강화하고 있음.
3. 상징에 의한 암시적 표현을 사용함.
4. 선경 후정의 방식을 취함
5.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드러냄.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우리나라 극한의 공간(희망이 사라진 부정적 현실)

비 한 방울 내리잖는 그때에도

극한의 시간(조그만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현실의 시간)

오하려 꽃은 빨강게 피지 않는가

색채어를 더해 강인한 생명력과 현실 극복의지를 시각적으로 드러냄.(설의)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강조함.

부정적 현실 조건과 역설적 개화를 나란히 놓아 화자의 주체적 실천의 당위성과 결핍과 억압이 극대화될 수록 저항성이 더 커짐을 강조하고 있음.

▶ 1연: 극한 상황에서도 피어나는 꽃

북쪽 쏜도라에도 찬 새벽은

'툰드라'라는 이국적 공간과 찬 새벽이란 시련의 시간을 제시

눈 속 깊이 꽃 맹아리가 움자거려

시련 화자가 품고 있는 희망, 현실 극복 의지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밝은 미래(희망) → 색채어를 활용해 희망의 정도를 구체화함.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영탄적 표현을 통해 희망적 미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고 있음.

툰드라라는 더 극한적 공간으로 이동하면서 '움자거림'의 미세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는 제비 떼를 기다리며 약속을 저버리지 않게 되는 윤리적 필연성으로 이어지고 있음.

▶ 2연: 인고의 시간 속에서 새로운 생명 탄생의 기대

한 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곳

희망의 공간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희망의 공간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직유법) 미래의 시점에 희망을 이룬 존재, 해방을 맞은 우리 민족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영탄적 표현

시간을 '오늘', '여기'의 현재로 수렴하면서 추상적 상징을 구체적 실존 공간과 시간으로 한정한다. 이는 꽃이 먼 미래의 희망이 아니라 지금 호출되는 존재이고 희망적 시간이 도래할 것을 인식하는 화자의 모습이기도 하다.

▶ 3연: 꽃이 피어날 미래에 대한 기대와 기쁨

표현상의 특징

영탄적 표현

~날이여, 약속이여, 불러보리라
→ 화자의 태도를 부각함.

색채어 사용

빨강게, 까맣게
→ 대상의 상징적 의미를 드러냄.

직유의 방식

나비처럼
→ 대상을 구체적 형상으로 제시.

의문형 표현

피지 않는가
→ 대상의 속성을 강조함.

화자의 현실 인식과 태도

- 현실을 극한으로 인식
- 조국광복을 염원
- 긍정적 미래 기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음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림

툰드라 찬 새벽



(나) 누룩

I 이성부

핵심 정리

작품 개관

역압에도 꽃같이 피어나는 민족적 희망과 저항의 의지를 꽃을 통해 표현!

이 시는 술의 재료인 '누룩'을 의인화해 자신을 희생하여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고 역사를 진전시키는 민족의 저력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누룩'은 적절한 기후 조건인 알맞은 바람과 좋은 물을 만나면, 스스로 썩어 문드러지지만 물과 함께 덩달아 끓어 올라(발효) '춤', '기쁨', '해 솟는 얼굴'이 된다. 화자는 이런 누룩의 속성을 통해 희생과 사회적 연대를 통해 사회를 극복해 가는 민족의 모습을 구현하고 있다.

작품 개관

- 갈래: 자유시
- 성격: 의지적, 희망적, 상징적
- 주제: 민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감
- 특징

1. 누룩에 인격을 부여하여 시상을 전개함.
2. 누룩의 속성과 민족의 속성을 병치하고 있음.
3. 의문형 종결 어미로 누룩의 속성을 부각함.
4.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시상을 전개.
5. 누룩이 발효되는 과정을 감각적 이미지로 표현.

(나)

- [내재적 관점]: • 누룩 → 썩음(희생) → 술(기쁨)
 [외재적 관점]: • 민족 → 투쟁(고난) → 새로운 역사(기쁨)

누룩 한 덩이가

중심 소재: 술을 빚는 발효제로 여기서는 '민중'을 가리킴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누룩을 의인화 민족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부분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민중의 나약함이 드러나는 부분

알맞은 바람 만나

누룩이 발효되는 조건(민중의 연대 가능성)

살며시 더운 가슴

누룩이 발효되는 조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의문형의 반복 효과: 대상이 지닌 속성 강조+운율 형성

누룩 한 덩이가 적당한 온도와 바람을 만나 발효를 시작하며 스스로 뜨거워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음. 누룩을 민족으로 무력함에 부대끼는 것을 현실의 고통과 시련으로 볼 수 있음. 누룩의 인내와 열정이 드러난 연.

▶ 1연: 누룩이 뜨는 까닭의 인식



발효되는 과정 속에 나타나는 반응을 우는 소리로 표현하여 무릎이 깨지는 고통(으깨짐)을 견디며 고통을 피우는 누룩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음. 이는 고난 속에 피어나는 연대와 희망을 표현한 것임.

▶ 2연: 누룩이 겪는 시련과 고통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박새도룩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청각적 심상으로 민족의 고난을 드러내고 있음.

지 혼자는 찾는 길이

개인이 소망하고 가는 길

여럿이도 찾는 길임을

개인의 소망이 곧 민족의 공동체적 소망임.

엄동설한 칼벌은 알고 있나니

군사독재(현실). 부정적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희망

무르팍 으깨져도 꽃 피는 가슴

누룩의 자기 희생적 모습(희생을 통해 '꽃'을 형성하는 모습)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청각적 심상으로 누룩의 희생적 사랑을 강조함.

자기 희생 통한 승화를 위한 견뎌.

▶ 3연: 술이 되기 위한 누룩의 인내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누룩이 발효되는 시간(민중의 인내를 드러냄)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누룩이 발효되어 술이 되어 가는 과정(누룩의 자기 희생)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누룩이 발효되어 술이 되어 가는 과정(누룩의 자기 희생)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연대의 힘으로 희망을 열어나가는 모습을 물을 만나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함께 열정이 생겨 연대감이 결정되는 모습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누룩의 희생을 통해 얻은 긍정적 가치

해 솟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춤, 기쁨, 해솟는 얼굴 → 누룩의 희생적 사랑의 결과물

▶ 4연: 발효로 술이 되어 타인에게 기쁨을 주는 누룩

좋은 물은 누룩과 결합하여 만드는 또 다른 민중이나 포용력을 의미하며, 함께 끓는 마음은 민족의 연대와 열기를 시각적, 청각적으로 표현한 것임. 이를 통해 새로운 세상은 희생을 통해 새로운 생명과 기쁨으로 부활하는 역설적 구조로 이루어진다.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강정의 작설적 표현(영탄적 어조)

냄새 퍼지나니

후각적 이미지를 통해 민족의 희생으로 얻어진 희망이 확산되는 모습을 강조.

▶ 5연: 발효되어 퍼지는 누룩과 술의 냄새

새로운 시대의 확산을 드러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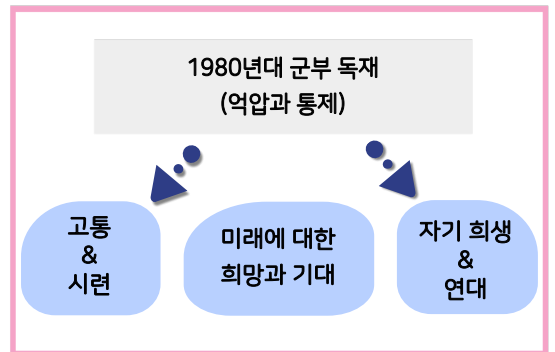
누룩의 상징적 의미

누룩 (민중)	지 혼자 무력함	나약한 존재
	알맞은 바람, 좋은 물 만남	연대
	누룩이 뜸, 냄새가 퍼짐	새로운 희망



화자에게 인식과 깨달음을 줌.

▶ 누룩에 담긴 시대 현실과 화자의 태도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비 한 방울 나리잖는 그때에도
 오히려 꽃은 빨갭게 피지 않는가
 내 목숨을 꾸며 쉬임 없는 날이여

북쪽 쓴도라에도 찬 새벽은
 ㉡눈 속 깊이 꽃 맵아리가 움자거리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
 마침내 저바리지 못할 약속(約束)이여

한 바다 북판 용솨음치는 곳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城)에는
 나비처럼 취(醉)하는 회상(回想)의 무리들아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이육사, '꽃'

(나)
 누룩 한 덩이가
 뜨는 까닭을 알겠느냐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부대끼다가
 어디 한군데로 나자빠져 있다가
 알맞은 바람 만나
 살며시 더운 가슴
 그 사랑을 알겠느냐

오가는 발길들 여기 멈추어
 밤새도록 우는 울음을 들었느냐
 ㉤지 혼자는 찾는 길이
 여럿이도 찾는 길임을
 엄동설한 칼별은 알고 있나니
 ㉥무르팍 으깨져도 꽃 피는 가슴
 그 가슴 울림 들었느냐

속 깊이 쌓이는 기다림
 삭고 삭아 부서지는 일 보았느냐

지가 죽어 썩어 문드러져
 우리 고향 좋은 물 만나면
 덩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을 알겠느냐
 춤도 되고 기쁨도 되고
 해 솨는 얼굴도 되는 죽음을 알겠느냐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냄새 퍼지나니

-이성부, '누룩'

01 다음 중 (가)와 (나)에 나타난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내적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의인화를 활용하여 사물과 현상에 생명과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 ③ 사회적 현실을 직접적으로 서술하여 시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④ 상징적 사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반복적이고 열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2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정서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연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무상함과 허무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② 생명과 활력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내적 열정과 생명력을 긍정하고 있다.
- ③ 사회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묘사하여 부조리와 분노를 드러내고 있다.
- ④ 회상과 고독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절망과 고립을 나타내고 있다.
- ⑤ 향수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순수한 유희적 정서를 전달하고 있다.

03 (가)와 (나)의 시상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화자의 내적 회상과 감정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나)는 누룩과 공동체적 삶을 통해 연대와 희생적 사랑이 드러난다.
- ② (가)는 공간적 이동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나)는 시간적 흐름을 따라 전개된다.
- ③ (가)는 자연 현상과 꽃 이미지를 통해 감정이 형성되고 있고, (나)는 발길과 누룩 이미지를 통해 개인적 경험이 강조된다.
- ④ (가)는 과거 사건 나열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고, (나)는 인물 간 대화를 따라 진행된다.
- ⑤ (가)는 논증적·교훈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나)는 교훈적 메시지가 반복된다.





04 (가)와 (나)에 나타난 화자의 태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거 향수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는 회상을 드러내고 있고, (나)는 현실 체념적 태도를 보인다.
- ② 생명력과 열정의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는 개인적 생명력과 공동체적 희망을 긍정하고 있고, (나)는 공동체적 연대와 희생적 사랑을 드러낸다.
- ③ 자연의 질서 회복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는 허무를 극복하고 있고, (나)는 개인적 상실감을 극복하고 있다.
- ④ 고립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나)는 자기 희생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⑤ 설득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가)는 교훈적 설득을 하고 있고, (나)는 철학적이고 관념적 성찰을 한다.

05 [보기]에 제시된 내용 가운데 (가)와 (나)에 부합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ㄱ: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내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ㄴ: 의인화를 활용하여 사물과 현상에 생명과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 ㄷ: 반복적·열정적 어조를 통해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ㄹ: 상징적 사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ㅁ: 직접적 현실 서술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ㅂ: 자연과 인간,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연결하여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ㄷ, ㄹ ③ ㄱ, ㄴ, ㄷ, ㄹ, ㅁ
- ④ ㄷ, ㄹ, ㅂ ⑤ ㄱ, ㄴ, ㄷ, ㄹ, ㅂ

06 (가)와 (나)를 감상한 후 나는 대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희현: 나는 (가)에서 화자가 조국 광복에 대한 신념과 기다림을 점층적 시상 전개와 상징적 표현을 통해 강인하게 드러낸 점이 인상적이야. 화자의 의지적 태도가 명확히 느껴져.
- ② 철민: 맞아. (나)에서는 누룩의 속성과 민중의 속성을 병치하고, 감각적 이미지와 의문형 종결 어미를 통해 민중의 가능성과 신뢰를 강조한 점이 돋보였어.
- ③ 수연: 근데 (가)에서는 신경 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영탄적 표현만으로 화자의 정서를 전달했기 때문에 시의 주제와 연결된 감정이 약하게 느껴졌어.
- ④ 지훈: 나는 (나)에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화법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한 점이 흥미로웠어. 덕분에 독자가 누룩과 민중의 의미를 공감할 수 있었지.
- ⑤ 민서: (가)와 (나) 모두 상징과 감각적 이미지를 통해 화자의 신념과 공동체적 연대의 의미를 암시적으로 드러낸 것도 눈에 띄었어.

07 [보기]를 참고하여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앙가주망은 문학작품이 사회·정치적 현실과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태도를 의미하며, 20세기 프랑스 비평가 앙드레 브르통과 사르트르 등에 의해 논의되어, 작품이 단순히 미적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작가의 가치관과 윤리관, 현실 참여를 보여주며, 사건·인물·상징이 사회적 문제나 인간 삶의 조건과 연결될 때 실현되고, 이를 통해 개인적·정서적 표현을 넘어서 공동체적·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드러낼 수 있으며, 반드시 정치적 선동을 의미하지 않고 인간 삶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참여를 포함한다.

- ① (가)의 '제비 떼'에 '까망게'는 단순한 색채성을 뛰어 넘는 화자의 간절한 희망이 담겨 [보기]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② (가)에서 꽃성은 '회상의 무리'들이 진정한 자유를 찾는 공간으로, 자연이 결합된 공간보다는 희망이 성취된 공간이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③ (나)에서 누룩 한 덩이가 무력하다거나 부대끼다는 것은 '누룩'을 민중이라는 대상으로 치환했을 때 가능하기에 [보기]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④ (나)에서 엄동설한에 칼별을 아는 것은 혹독한 시련의 정도를 민중이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에 부합한다.
- ⑤ (가)와 (나) 모두 화자의 약속과 누룩의 희생적 태도를 통해 현실 개선의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기]의 내용에 부합한다.

08 [보기]와 (가), (나)를 비교 감상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나는 무슨 전람회 에 온 듯 / 자리를 옮겨 다녀 보고 / 다시 꽃이 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 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에꽃 한 잎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최두석, '성에꽃' 중에서

- ① (가)의 역설적 표현은 [보기]에서 '차가운 아름다움'에서 확인할 수 있겠군.
- ② (가)의 '회상의 무리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보기]의 성에꽃의 주체들에게도 유사하게 느끼겠군.
- ③ (가)의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은 [보기]에 성에꽃 한 잎 지우는 화자의 행동의 결과로 볼 수 있겠군.
- ④ (나)의 살며시 더운 가슴은 [보기]의 '정열의 숨결'과 의미적 유사성을 엿볼 수 있겠군.
- ⑤ (나)의 '춤, 기쁨, 해 솟는 얼굴'을 만들어주는 주체를 [보기]에서 확인하기가 어렵군.





프리미엄 수특 변형 문제



0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시·공간의 극한적 상황을 통한 현실 인식의 상태이다.
- ② ㉡: 대립적 시어를 병치하여 화자의 행동에 인과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 ③ ㉢: 시간과 공간 주체를 모두 제시하며 희망의 공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지도자를 상실한 민중이 어리석고 무기력할 수밖에 없음을 드러낼 뿐 부정적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다.
- ⑤ ㉤: 누룩이나 민중 모두 현실적 희생과 시련을 통해 실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10 ㉠의 함축적 의미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개인적 노력은 무의미하며, 집단적 행동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 ② 민중의 희생과 연대가 공동체적 실천으로 연결됨을 상징한다.
- ③ 민중의 무력함을 비판하며, 사회적 부정을 강조한다.
- ④ 화자의 지도력이 부족함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적 표현이다.
- ⑤ 민중의 노력과 연대가 단순히 자연 현상의 순환과 동일시된다.

11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미완성 결말과 감각의 공간 확산을 통해 희망적 상황을 드러낸 것이다.
- ② 누룩의 발효 과정을 단순히 부패와 실패 과정으로만 읽어, 부정적 상황을 강조한 것이다.
- ③ 시적 화자가 감각적 경험을 통해 민중의 연대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는 배제된다.
- ④ 냄새 퍼짐을 단순한 환경 묘사로 해석하여, 시구의 상징성과 정서적 의미를 간과한 것이다.
- ⑤ 시적 표현이 화자의 개인적 감정 표현에만 머무르고, 공동체적 실천이나 연대 의미와 연결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다.

12 학생들의 대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희현: (가)의 “제비 떼 까맣게 날아오길 기다리나니”는 단순한 자연 묘사가 아니라, 화자의 희망과 미래 지향적 의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느꼈다.
- ② 민수: (나)에서 “지 혼자는 찾는 길이, 여럿이도 찾는 길임을”은 민중의 연대와 공동체적 실천 가능성을 상징하며, 단순한 관찰이나 감상적 표현이 아님을 깨달았다.

- ③ 지연: (가)의 꽃성 속 회상의 무리와 (나)의 누룩 발효 과정 모두 화자의 개인적 감정 표현에만 머무르고, 공동체적 의미나 사회적 참여는 드러나지 않는다고 느꼈다.
- ④ 승우: (나)에서 누룩이 부대끼는 장면은 민중의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내면서도, 희생과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한다고 생각했다.
- ⑤ 소영: (가)에서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과 “나비처럼 취하는 회상의 무리들”은 화자의 정서와 희망이 상징적·감각적 이미지로 결합된 시적 장치임을 깨달았다.

13 (나)의 종결어미가 주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반복과 의문형 종결어미를 통해 운율을 형성하며 시적 대상의 속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 ② 미지의 독자에게 새로운 인식과 각성을 촉구하며 인식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③ 민중의 힘이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인가에 대한 시적 화자의 영탄적 감정을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 ④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으로 전향하기 위한 화자의 의도적 설정이다.
- ⑤ 연대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면에 개인적 소망을 이루는 것의 가치를 드러내는 효과가 있다.

[서술형]

14 (가)에서 시적 화자의 당위적 행동으로 변화된 공간을 나타내는 시어를 찾아 쓰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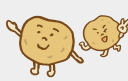


[서술형]

15 (가) 「꽃」의 ‘동방’과 (나) 「누룩」의 ‘우리 고향’에 나타난 공간의 의미와 화자의 태도를 비교하여 서술하시오. (조건. 공통점과 차이점, 화자의 행동이나 의지, 공간 변화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정답 및 해설



01

[정답]③
(해설)

두 시 모두 사회적 현실을 직접 서술하지 않고, 은유와 상징, 이미지로 내적·집단적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가) '꽃 맹아리', '비 한 방울' / (나) '당달아서 함께 끓는 마음' 등 감각적 이미지로 내적 정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가) '회상의 무리들아' / (나) '지 혼자 무력함에 부대끼고' 등 의인화를 활용하여 사물과 현상에 생명과 성격을 부여하고 있다.
- ④: (가) 꽃·제비·꽃성 / (나) 누룩, 칼별 등 상징적 사물을 활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 / (나) '아 지금 감춰둔 누룩 뜨나니' 등 반복적·열정적 어조를 활용하여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02

[정답]②
(해설)

두 시 모두 절망이나 분노보다 생명력과 내적 활력을 중심으로 정서를 긍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자연의 무상함보다는 생명력과 희망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사회적 부조리는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
- ④: 회상과 기다림은 존재하지만 절망적 성격이 아니다.
- ⑤: 유희적 즐거움이나 향수가 중심적이지 않다.

03

[정답]①
(해설)

(가)에서는 화자의 내적 회상과 감정이 시상 전개의 중심을 이루고, (나)에서는 누룩과 공동체적 삶을 통해 연대와 희생적 사랑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시상을 전개한다.

두 시 모두 외적 사건보다는 화자의 심리적·내적 요소와 상징적 사물을 통한 전개가 핵심이다.

[오답 피하기]

- ②: 공간·시간 이동은 일부 요소일 뿐, 주된 시상 전개 흐름이 아니다.
- ③: (나)에서 개인적 경험 강조는 사실과 다르며, 공동체적 연대가 중심이다.
- ④: 과거 사건 나열과 인물 간 대화는 시상 전개에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논증적·교훈적 전개는 두 시 모두에 해당되지 않는다.

04

[정답]②
(해설)

(가) '꽃'에서는 생명력과 열정의 이미지를 통해 개인적 생명력과 희망을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나) '누룩'에서는 공동체적 연대와 희생적 사랑을 강조하며, 개인보다 집단과 연대의 가치를 시적 장치로 드러내고 있다.

두 시 모두 화자의 적극적, 긍정적 태도가 중심이며, 정서를 전달하는 방식에서 시적 소재와 이미지를 활용하고 있다.

[오답 피하기]

- ①: (나)는 현실을 체념하거나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연대와 희생적 사랑을 강조한다.
- ③: (나)는 개인적 상실감이 아니라 집단적 연대와 삶의 힘을 표현한다.
- ④: (가)는 고립적·체념적 태도가 아니라 내적 생명력과 열정을 드러낸다.
- ⑤: 두 시 모두 설득적·교훈적 구조나 철학적 관념보다는 이미지와 상징을 통한 정서적 전달이 중심이다.

05

[정답]⑤
(해설)

(가)와 (나) 모두 **감각적 이미지(ㄱ)**와 의인화(ㄴ), 반복적·열정적 어조(ㄷ), **상징적 사물(ㄹ)**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두 시 모두 **자연과 인간, 개인과 공동체의 삶을 연결(ㅁ)**하여 정서를 확장하고 있다.

(나)는 사회적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서술하지 않으므로 ㄴ은 포함되지 않는다

06

[정답]③
(해설)

③번 수언의 발언은 적절하지 않음.

(가) '꽃'은 신경 후정의 방식을 사용하여 화자의 정서를 영단적·상징적 표현과 결합시킴으로써 주제와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따라서 "신경 후정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해석은 사실과 다르다.

07

[정답]④
(해설)

④번 선지는 작품 속 이미지의 의미를 일부만 해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

(나) '누룩'에서 '엄동설한'은 혹독한 현실을 상징하지만, '칼별'은 그 현실을 극복하게 하는 희망을 나타낸다.

선지에서는 단순히 '부정적 현실의 인식'으로만 해석하고 있어, 작품이 보여주는 극복과 희망, 공동체적 연대와 책임이라는 양가주망적 의미가 반영되지 않는다.

따라서 ④번은 [보기]의 양가주망적 관점에서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다른 선지들은 이미지와 상징이 사회적·윤리적 의미, 연대, 희생적 참여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보기]와 부합한다.

08

[정답]③
(해설)

(가) '꽃'의 '바람결 따라 타오르는 꽃성'은 시 속 상징적 공간으로, 화자의 회상과 이상, 희망을 담고 있는 자율적 상징이다.

따라서 성에꽃에서 화자가 한 잎을 지우는 행위는 이마를 대는 행위로 이어지는 전 단계로 작용할 뿐이다.

- ①: (가)의 역설적 표현 → '차가운 아름다움' → 상징과 정서적 의미가 유사 → 적절
- ②: (가) '회상의 무리들'에 대한 화자의 인식과 태도 → 성에꽃 화자의 섬세한 관찰과 감정 → 적절
- ④: (나)의 '살며시 더운 가슴' → 성에꽃 '정열의 숨결' → 의미적 유사성 → 적절
- ⑤: (나) '춤·기쁨·해 솟는 얼굴' → 주체가 누룩과 민중 → 성에꽃에서는 주체 확인 어려움 → 적절

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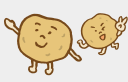
[정답]④
(해설)

④번은 적절하지 않음.

③ 구절은 민중이 현실 속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 주지만, 지도자의 상실로 어리석거나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지 ④는 구절의 실제 의미를 정확히 반영하지 않는다.





10

[정답] ②
[해설]

이 시구는 개인과 집단의 관계를 보여주며, 민중의 노력과 연대가 공동체적 실천과 가능성으로 이어짐을 상징한다.

11

[정답] ①
[해설]

- ①번은 적절함.
이 시구는 발효 과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를 보여주며, 감각적 공간의 확산(냄새 퍼짐)으로 미완성이지만 희망적 가능성을 내포한다.
오답 선지 분석
②: 누룩 발효를 부패·실패 과정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시의 연대와 희망적 의미를 무시한 해석이다.
③: 민중 연대와 가능성을 배제했다고 보는 것은 시적 의미를 왜곡한 것이다.
④: 냄새 퍼짐을 단순 환경 묘사로 보는 것은 감각적 상징성을 간과한 해석이다.
⑤: 화자의 개인적 감정에만 머문다고 보는 것은, 시에서 드러나는 연대·실천 의미를 무시한 해석이다.

12

[정답] ③
[해설]

(가)와 (나)는 단순한 개인 감정 표현이 아니라, 화자의 희망, 기다림, 신념(가)민중의 연대, 실천 가능성(나)을 의인법, 감각 이미지, 상징적 시구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개인적 감정 표현에만 머무른다"는 해석은 시의 핵심 의미를 잘못 이해한 것이다.

13

[정답] ① 반복과 의문형 종결어미는 운율을 형성하고, 누룩의 속성을 화자가 직접 관찰하고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14

[정답]
꽃성
[해설]

'꽃성'은 화자의 희망과 의지가 시적 공간에 생명력과 의미를 부여한 상징적 공간이다.
"바람결 따라 타고르는"이라는 표현과 결합되어, 화자의 능동적·당위적 행동이 공간을 변화시키고, 활력과 기대를 실현했음을 보여준다.

15

[정답 예시] 두 작품의 공간은 모두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생명과 희망, 공동체적 의미를 품은 상징적 공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가)의 '동방'은 "하늘도 다 끝나고 / 비 한 방울 나리잖는" 절망적 현실 속에서도 "꽃은 빨갱게 피"는 미래 지향적 공간으로 제시된다. 화자는 "오늘 내 여기서 너를 불러 보노라"라고 하며 그 공간을 향해 존재를 호명하고, 끝내 이루어질 "약속"을 믿는 의지를 드러낸다. 즉 '동방'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이상과 구원의 공간이며, 화자는 그것을 기다리고 불러내는 능동적 태도를 보인다.
반면 (나)의 '우리 고향'은 누룩이 "죽어 썩어 문드러져" 마침내 "좋은 물 만나면 / 덩달아서 함께 끓는" 생성과 연대의 공간이다. 이 공간은 단순한 이상향이 아니라 희생과 기다림이 실제로 공동체적 생명력으로 전환되는 구체적 삶의 자리라는 점에서 (가)와 다르다. 화자는 직접 나서 외치기보다 "알겠느냐", "들었느냐", "보았느냐"와 같은 반복적 물음을 통해 청자로 하여금 그 공간의 의미를 깨닫게 하려 한다. 따라서 (가)의 화자가 미래의 이상 공간을 적극적으로 호명하며 성취 의지를 드러낸다면, (나)의 화자는 공동체적 삶의 공간이 지닌 생성의 원리를 환기하며 연대의 가치를 각성시키는 태도를 보인다.
또한 공간 변화의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가)는 척박한 현실에서 꽃이 피어날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지니며, 절망에서 희망으로의 상승적 변화를 보여 준다. 반면 (나)는 한 덩어리 누룩이 삭고 부서지고 문드러지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모두가 함께 끓는 상태로 나아간다는 점에서, 소멸이 곧 생성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변화를 보여 준다. 결국 두 시는 모두 공간을 통해 희망을 말하지만, (가)는 이상과 약속의 도래를 기다리며 불러내는 공간, (나)는 희생과 연대를 통해 공동체적 생명이 실제로 피어나는 공간으로 형상화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 배포, 공유, 전송 또는 상업적 이용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137조에 따라 형사 처벌(벌금 또는 징역)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용을 원하시면 반드시 저작권자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